

웅진, 현대중공업에 폴리실리콘 공급

2011년부터 5년간 5억달러 상당 ... 설립 5개월만에 대규모 장기계약

웅진홀딩스는 계열사인 태양광 소재 생산기업 웅진폴리실리콘이 현대중공업과 5억달러 상당의 폴리실리콘 (Polysilicone)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월19일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2011년부터 5년간이며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금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이다. 이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은 설립 5개월 만에 대규모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성공하는 기록을 세웠다.

웅진폴리실리콘은 1월6일 경상북도 상주시의 공장 부지 매입계약을 마무리 짓고 1월2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장 설립에 착수해 2010년 하반기에는 폴리실리콘 5000톤 플랜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19>